

[ 종합·해설 ]

광주·전남 시·도민 지방선거 7차 여론조사

광주일보·조선일보·한국갤럽

민주당 지지율 2주일 만에 5%p 떨어져

광주시장 박광태 민주당 후보  
우리당 누가 나와도 크게 이겨

박준영 52.5% - 서범석 14.0%  
전남지사 후보 격차 다소 줄어

■ 시·도지사 후보 가상대결

◇광주시장 후보 가상대결 = 민주당 박광태 후보가 열린우리당 후보로 누가 나와도 여유있게 이기는 것으로 조사됐다. 격차도 보름 전 여론조사 결과와 비슷했다. 민주당 박 후보는 우선 열린우리당 김재균 후보(23.3%)와 대결에서 46.9%의 지지율을 23.6% 포인트 앞섰고 조영택 후보(17.4%)와 대결에서는 50.6% 지지율로 지지 격차를 더욱 벌렸다.

박 후보는 특히 투표 확실층 사이에서 김 후보를 55.2%대 21.1%로, 조 후보를 54.5%대 18.5%로 우위를 더욱 확고히 했다.

박 후보는 성·연령·교육수준·직업·구별로 모두 살폈을 때 한 부문에서 뒤지는 것으로 조사됐다. 하지만 보름 전에서는 지지 격차가 10%포인트 내렸다.

김 후보는 열린우리당 지지자 사이에서 55.1%대 27.6%로 박 시장을 앞섰으나 텃밭인 북구에서마저 30.7%대 39.9%로 박 후보에 뒤지는 것으로 조사됐다. 하지만 보름 전 조사 때 28.1%대 41.7% 보다는 나아져 북구에서 김 후보의 지지가 서서히 상승하고 있는 것으로 분석됐다.

조 후보는 열린우리당 지지자 사이에서도

박 후보와 대결에서 37.1%대 39.4%로 지는 것으로 조사되는 등 모든 부문에서 뒤졌다. 민주당 박 후보는 조 후보가 열린우리당 후보가 됐을 때 10.4%, 김 후보가 나왔을 때 6.0%의 지지율을 얻는 것으로 조사됐다.

◇전남지사 후보 가상대결 = 이번 조사에서도 민주당 박준영 후보가 열린우리당의 서범석 후보를 압도적으로 앞서는 것으로 조사됐다.

양 후보간 맞대결에서 박 후보는 52.5%, 서 후보는 14.0%의 지지율을 각각 기록했다.

지지 격차는 38.5% 포인트. 보름 전 격차 44.2% 포인트보다 다소 줄었다. 두 후보간 지지 격차는 한 달 반전 48.5% 포인트에서 계속 줄고 있는 상황이다.

특히 투표 의향 질문에 '꼭 투표할 것이다'고 답한 투표 확실층에서는 박 후보가 57.7%의 지지율을 서 후보(14.1%)와 격차를 더욱 벌렸다.

박 후보는 성·연령·직업·교육수준별 모든 부문에서 서 후보를 압도했다.

지역별로 박 후보는 무안·신안(80.2%대 1.0%), 장흥·영암(66.7%대 4.6%), 목포(66.4%대 18.8%) 등 전남 서남권에서 서 후보를 크게 앞섰으나 여수(41.8%대 24.2%), 광양·구례(38.5%대 15.4%) 등 전남 동부권에서는 격차가 줄었다.

우리당 지지율도 1.9%p 하락

■ 정당지지도

1.9%포인트 줄어든 24.9%의 지지율을 기록했다. 하지만 민주당 지지 하락이 워낙 커서 지지율 격차는 12.8% 포인트로 보름 전 15.9% 포인트보다 줄었다.

이같은 민심의 변화는 특히 광주에서 심했다. 광주의 민주당 지지도는 30.8%로 보름 전 여론조사 결과 36.1%보다 5.3%포인트 떨어졌다.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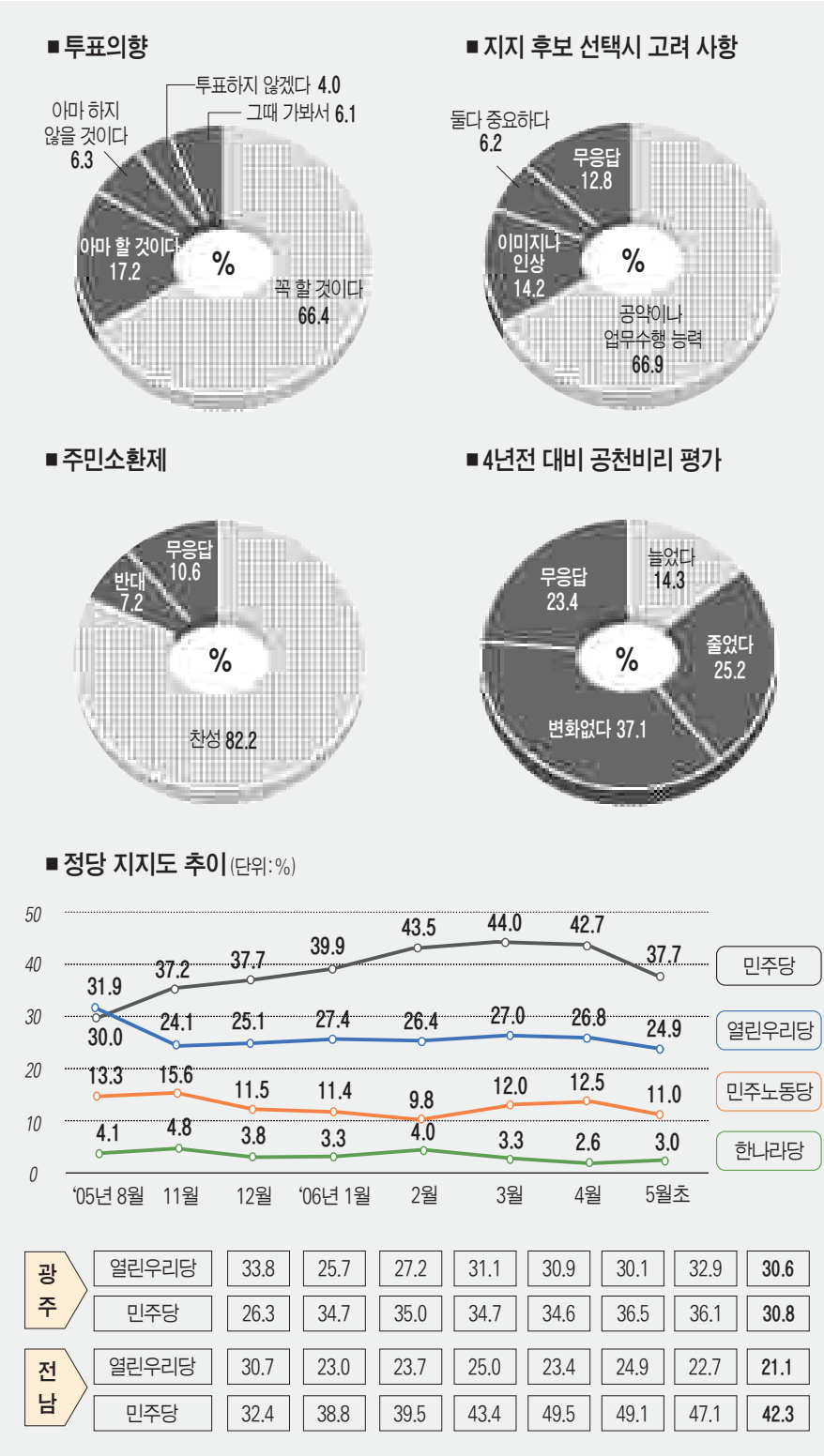
광주·전남 전체 변화의 대부분이 광주에서 기인한 것이라 분석이 가능하다. 열린우리당 지지율도 30.6%로 지난 여론조사 32.9%보다 낮아졌지만 광주에서 민주당과 열린우리당 지지율 격차는 거의 없는 상황이었다. 민주당은 남자, 50대 이상, 종교없이하위에서 상대적으로 인기가 높았다.

주요 정당의 지지도가 보름 전보다 모두 줄었다. 특히 민주당의 경우 그 폭이 심했다. 민주당은 보름 전 전략공천 등 공천과정의 문제점 때문에 지난해부터 이어진 상승세가 멈추고 소폭 하락했다. 보름 전 여론조사에서 민주당 지지율은 42.7%였다.

하지만 이번 조사에서는 지지도가 37.7%로 불과 보름 전보다 5%포인트나 떨어졌다. 조재한 사무총장의 돈 공천 의혹 관련, 체포가 민심에 상당한 영향을 준 것으로 풀이된다.

열린우리당 지지율도 보름 전 26.8%보다

광주일보는 조선일보와 공동으로 제4회 전국 동시 지방선거를 20여일 앞두고 광주·전남 및 수도권 유권자의 변화하는 표심을 알아보고 지방정치 발전과 투표 참여를 유도하기 위해 주민 정치의식 설문조사를 실시했다. 여론조사 전문가인 한국갤럽(Gallup Korea)에 의뢰해 실시된 이 여론조사는 지난해 11월과 12월, 올 1월, 2월, 3월, 4월에 이어 일곱번째다. 또 지방선거 직전에 한 차례 더 실시할 계획이다. 조사결과를 부문별로 살펴본다.



“공약·업무능력보고 선택” 66.9%

■ 지지후보 선택시 고려 사항

지지 후보를 선택하는 이유를 묻는 질문에 대해 응답자 중 66.9%는 ‘공약이나 업무수행능력’을 꼽았지만 ‘이미지나 인상’을 선택한 응답자는 14.2%에 불과했다. 우려했던 이미지 선거가 팽배하지는 않을 것이라 예측이 가능하다. 성별로 남자가 여자보다 이미지를 중요하게 생각, 남자 응답자의 19.3%가 ‘이미지나 인상’을 후보 선택의 이유로 꼽은 반면 여자는 9.2%만이 이에 답했다. 연령별로는 30대(19.1%), 교육수준별로는 중졸 이하(16.4%), 직업별로는 학생(22.4%)과 자영업자(18.0%)가 후보 선택 시 이미지를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으로 조사됐다.

광주·전남 유권자중 1,016명 표본 추출

■ 여론조사 어떻게 했나

5·31 지방선거 광주·전남지역 제7차 여론조사는 광주일보가 한국갤럽(Gallup Korea)에 의뢰, 지난 1일 이뤄졌다.

광주·전남지역 만 19세 이상 유권자 중 1천16명을 유효 표본으로 추출했으며 구조화된 질문지와 숙달된 전문면접원에 의한 전화조사 방식이 사용됐다.

각 지역별 인구수 비례에 따라 성별, 연령별 쿼터를 할당한 뒤 전산화된 전화번호 인명부에서 무작위로 추출한 응답자는 광주 505명, 전남 511명이었다.

응답자는 성별로 남자가 502명(49.4%), 여자가 514명(50.6%)이었고 연령별로 19~29세 222명(21.9%), 30대 214명(21.0%), 40대 210명(20.7%), 50세 이상 370명(36.4%)이었다. 직업별로는 자영업 105명(10.3%), 불투칼라 113명(11.1%), 화이트칼라 180명(17.7%), 가정주부 303명(29.8%), 학생 54명(5.3%), 무직 및 기타 262명(25.7%)이었다. 표본오차의 최대 허용한계는 95% 신뢰수준에 ±3.1% 포인트다.

수도권 여론조사는 조선일보가 한국갤럽에 의뢰, 지난 2일 이뤄졌다. 서울은 613명, 경기도는 618명, 인천은 523명의 유효 표본이 각각 추출돼 조사됐으며 표본오차는 서울 95% 신뢰수준에 ±4.0% 포인트, 경기 95% 신뢰수준에 ±3.9% 포인트, 인천 95% 신뢰수준에 ±4.3% 포인트였다.

/박지경기자 jkpark@kwangju.co.kr

“투표 참여하겠다” 83.6%

■ 지방선거 투표 의향

5·31 지방선거에서 ‘투표를 꼭 하겠다’고 응답한 경우는 66.4%. ‘아마 할 것 같다’고 응답한 유권자 17.2%까지 포함하면 전체의 83.6%가 투표에 참여할 뜻을 나타냈다. 반면 ‘아마 하지 않을 것이다’는 6.3%, ‘투표하지 않겠다’는 4.0%로 10.3%가 투표에 부정적 반응을 보였다. 6.1%는 ‘그때 가봐서’ 투표 여부를 결정하겠다고 답했다.

연령대별로는 20대 이하의 경우 70.7%만이 투표에 응할 뜻을 나타냈고 연령대가 높아질수록 투표의향이 많아져 50대 이상은 90.7%나 투표에 참여하겠다고 답했다.

꼭 투표하겠다고 밝힌 적극적 투표 참여자는 민주당 지지자가 78.8%, 열린우리당 지지자는 58.1%, 한나라당 지지자는 72.2%, 민노당 지지자는 53.2%였다.

“공천비리 여전” 37.1%

■ 4년 전 대비 공천비리 평가

응답자의 대부분이 공천비리가 4년 전 지방선거와 비교해 줄거나(25.2%) 변화가 없었다(37.1%)고 답했다. 반면 14.3%는 늘었다고 답했다. 이번 공천비리를 새로운 것으로 평가하기보다는 과거에서도 일반적이었던

현상으로 보는 것이다. 또 과거보다 줄었다고 보는 경향이 많은 것으로 봐서 과거 공천비리가 더 심각했다고 생각하는 응답자가 많은 것으로 보인다.

모든 연령층, 교육 수준, 직업에서 비슷한 결과가 나타났지만 민주노동당 지지자들만이 공천비리가 이번 지방선거에서 오히려 더 늘었다고 답했다.

찬성 82.2%로 압도적

■ 주민소환제

주민소환제에 대한 의견은 찬성이 82.2%로 반대(7.2%)보다 압도적으로 많았다. 모든 연령·직업·교육 수준에서 반대는 10% 미만이었으나 50세 이상(10.1%), 중졸 이하(10.9%), 무직(11.0%), 한나라당 지지자(23.5%) 등이 상대적으로 반대를 많이 했다.

지역별로는 광주 응답자의 주민소환제 찬성이 전남보다 상대적으로 많았다. 중졸 이하의 경우 21.7%가 모른다고 답해 아직도 상당수의 계층에서 주민소환제 의미를 모르고 있는 것으로 파악됐다.

/박지경기자 jkpark@kwangju.co.kr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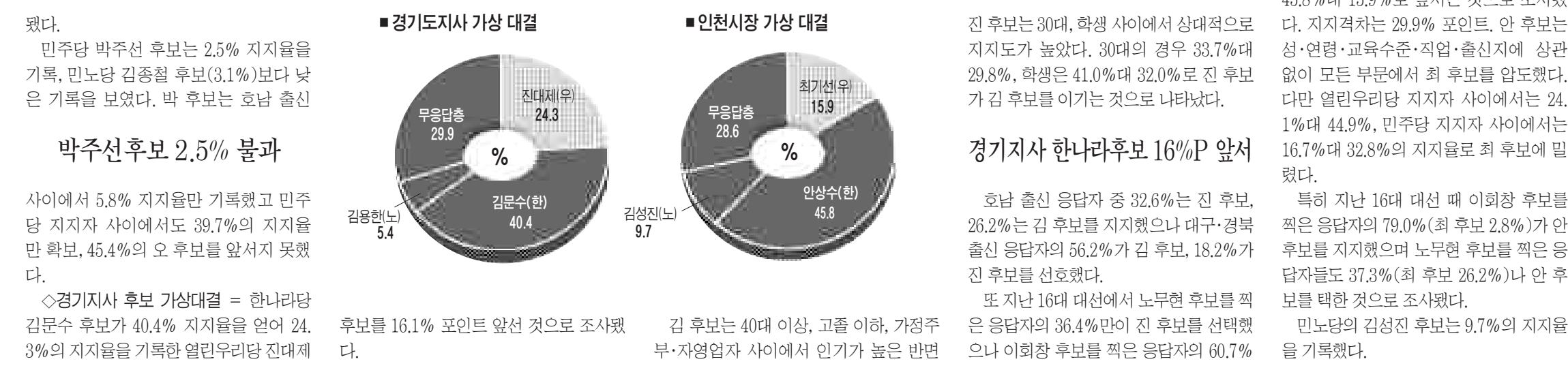
■ 수도권 후보 가상대결

◇서울시장 후보 가상대결 = 한나라당 오세훈 후보가 48.1%의 지지율로 27.8%에 그친 열린우리당 강금실 후보를 20.3% 포인트 차이로 앞서는 것으로 조사됐다.

오 후보는 연령·교육수준·직업·권역별로 살폈을 때도 전반적으로 강 후보를 압도했으나 20대 이하와 학생층 사이에서는 강 후보에 뒤지거나 비슷했다. 20대 이하에서 지지율은 강 후보 41.9%대 오 후보 36.1%, 학생층에서는 강 후보 35.5%대 오 후보 35.5%였다.

특히 눈길을 끄는 것은 호남 출신자 사이에서도 오 후보는 39.7% 지지율로 강 후보 33.8%를 앞섰다. 16대 대선 때 이회창 후보를 찍은 응답자 중 84.0%는 오 후보를 지지했으나 노무현 후보를 찍은 응답자의 39.2%만이 강 후보를 지지한 것으로 조사

서울시장후보 호남출신 지지율 오세훈 39.7% 강금실 33.8%



■ 박주선 후보 2.5% 불과

사이에서 5.8% 지지율만 기록했고 민주당 지지자 사이에서도 39.7%의 지지율만 확보, 45.4%의 오 후보를 앞서지 못했다.

◇경기지사 후보 가상대결 = 한나라당 김민수 후보가 40.4% 지지율을 얻어 24.3%의 지지율을 기록한 열린우리당 진대제 후보를 16.1% 포인트 앞선 것으로 조사됐다.

김 후보는 40대 이상, 고졸 이하, 가정주부·자영업자 사이에서 인기가 높은 반면

경기 후보는 30대, 학생 사이에서 상대적으로 지지도가 높았다. 30대의 경우 33.7%대 29.8%, 학생은 41.0%대 32.0%로 진 후보가 김 후보를 이기는 것으로 나타났다.

호남 출신 응답자 중 32.6%는 진 후보, 26.2%는 김 후보를 지지했으나 대구·경북 출신 응답자의 56.2%가 김 후보, 18.2%가 진 후보를 선호했다.

또 지난 16대 대선에서 노무현 후보를 찍은 응답자의 36.4%만이 진 후보를 선택했으나 이회창 후보를 찍은 응답자의 60.7%

가 김 후보를 지지했다. 민노당 김용환 후보는 5.4%의 지지율을 얻는데 그쳤다.

◇인천시장 후보 가상대결 = 한나라당 안상수 후보가 열린우리당 최기선 후보를 45.8%대 15.9%로 앞서는 것으로 조사됐다. 지지격차는 29.9% 포인트. 안 후보는 성·연령·교육수준·직업·출신지에 상관 없이 모든 부문에서 최 후보를 압도했다. 다만 열린우리당 지지자 사이에서는 24.1%대 44.9%, 민주당 지지자 사이에서는 16.7%대 32.8%의 지지율로 최 후보에 밀렸다.

특히 지난 16대 대선 때 이회창 후보를 찍은 응답자의 79.0%(최 후보 2.8%)가 안 후보를 지지했으며 노무현 후보를 찍은 응답자들도 37.3%(최 후보 26.2%)나 안 후보를 택한 것으로 조사됐다.

민노당의 김성진 후보는 9.7%의 지지율을 기록했다.

경기지사 한나라후보 16%p 앞서

호남 출신 응답자 중 32.6%는 진 후보, 26.2%는 김 후보를 지지했으나 대구·경북 출신 응답자의 56.2%가 김 후보, 18.2%가 진 후보를 선호했다.

또 지난 16대 대선에서 노무현 후보를 찍은 응답자의 36.4%만이 진 후보를 선택했으나 이회창 후보를 찍은 응답자의 60.7%